1일 열린 도쿄올림픽 기계체조 여자 도마 결승전에서 한국 여서정이 연기를하고 있다. 연합뉴스

체조 간판 여서정 도마 '동메달'

2020 도쿄올림픽 기계체조 도마 결선서 메달 획득
한국 체조 역대 10번째·한국 최초 '부녀' 메달리스트

한국 여자 체조의 간판 여서정(19·수원시청)이 처음으로 출전한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체육사에 남을 이정표를 세웠다.

여서정은 1일 일본 도쿄 아리아케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여자 기계체조 도마 결선에서 1, 2차 시기 평균 14.733점을 획득했다.

여서정은 레베카 안드라데(브라질·15.083점), 마이케일러 스키너(미국·14.916점)에 이어 동메달을 목에 걸어 1996 애틀랜타 대회 남자 도마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아버지 여홍철(50) 경희대 교수와 함께 대한민국 최초의 부녀(父女) 올림픽 메달리스트라는 역사를 썼다.

여서정은 1차 시기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등재된 난도 6.2점짜리 '여서정'을 펼쳐 수행점수 9.133점을 보탠 15.333점의 압도적인 점수를 받아 금메달 가능성을 높였다.

그러나 2차 시기에서 14.133점의 다소 박한 점수에 그쳐 평균 점수에서 두 선수에게 밀려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여서정은 또 한국 체조에 역대 10번째 올림픽 메달도 선사했다. 한국 여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올림픽 메달을 땄다.

1988년 서울 대회 도마에서 박종훈 현 가톨릭관동대 교수가 동메달을 획득한 이래 한국은 2016 리우데자네이루 대회까지 금메달 1개, 은메달 4개, 동메달 4개 등 9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여기에 여서정이 여자 선수로 최초 메달리스트라는 기록을 세우며 10번째 메달을 땄다.

양학선(29·수원시청)이 2012년 런던 대회 도마에서 한국 체조에 유일한 금메달을 선사했다. 연합뉴스

한국 8강 넘어 메달 획득 '가시권'

여자배구 A조 3위 유력
디펜딩 챔프 중국 탈락
8강 상대는 '오리무중'

7월 31일 열린 도쿄올림픽 여자배구 한일전에서 김연경이 공격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연경과 황금세대'가 허들 하나를 넘었다. 이제 '배구 여제' 김연경(33·중국 상하이)이 여러 차례 '배구 인생 마지막 목표'라고 공언한 올림픽 메달도 시야에 들어온다. 하지만 1976년 몬트리올 대회 이후 아직 한국 배구가 손에 넣지 못한, 올림픽 메달을 얻기 위해서는 더 높은 산을 넘어야 한다.

세계랭킹 14위인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은 7월 31일 일본 도쿄 아리아케 아레나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배구 여자 A조 예선 4차전에서 일본(5위)을 세트 스코어 3-2로 꺾고, 8강 진출 티켓을 손에 넣었다.

도쿄올림픽 배구는 승수, 승점, 세트 득실, 점수득실 순으로 순위를 가린다. 한국은 3승 1패로 세르비아(10위)와의 예선 마지막 경기(2일)만 남겨둔 상황에서 최소 조 3위 자리를 확보했다.

B조에서는 8강에 진출할 4팀이 모두 정해졌다. 그러나 1~4위 세부 순위는 마지막 날 결정된다.

이탈리아(6위), ROC(러시아올림픽위원회·9위), 미국(1위)이 물고 물리며 3승 1패로 1~3위에 자리했고, 터키(4위) 2승 2패가 B조 4위를 달린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우승팀이자, 세계랭킹 3위인 중국은 1승 3패로 탈락이 확정됐다.

김연경이 "A조도 어렵지만, B조에 들어가지 않은 건 다행"이라고 할 정도로, B조는 혼돈의 연속이었다.

한국의 8강 상대도 8월 2일에나 결정된다. 예상대로 한국이 A조 3위를 하면, B조 2위와 8강에서 대결한다.

이탈리아, ROC, 미국은 물론이고 터키도 B조 2위에 오를 수 있다.

터키는 2일 예선 최종전에서 ROC에 승리하면, 이탈리아-미국전의 패자를 밀어내고 2위로 예선을 마친다.

4개 팀 모두 한국이 상대 전적에서 밀린다. 한국은 이탈리아에 13승 16패, ROC에 8승 51패, 미국에 22승 38패, 터키에 2승 7패로 열세였다.

한국 여자배구는 2012년 런던에서 4강 진출에 성공했지만, 동메달 결정전에서 일본에 패했다. 2016년 리우에서는 8강전에서 네덜란드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한 걸음 혹은 두 걸음이 부족했던 올림픽 메달을 위해 김연경과 황금세대가 다시 날아오른다. 연합뉴스

'어벤쥬스' 女골프 대표팀 2연패 도전

박인비·고진영·김세영 출격 준비

2020 도쿄올림픽 하반기 우리나라 선수단의 메달 레이스에 큰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되는 여자 골프 선수단이 여자배구 한일전 짜릿한 역전승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입을 모았다.

고진영은 "일본에서 한일전을 시청하니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더욱 느껴졌다"며 "어렵게 이겨서 더 감동적이었고, 골프에서도 꼭 가장 높은 곳에 태극기를 꽂을 수 있도록 다짐하는 하루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날 일본에 도착한 이들은 팀 이름도 공개했다.

작명을 맡은 김효주는 "한국에서 팬 여러분들이 저희를 가리켜 '어벤져스'라고도 하시는데 저희는 또 달달해보이고 싶은 마음에 '쥬스'가 달콤하니 '어벤쥬스'로 팀 이름을 정해봤다"고 설명했다.

올림픽 첫 출전인 고진영도 "일본 코스의 특성상 페어웨이가 좁고, 큰 나무가 많아서 티샷이 똑바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이어 2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하는 박인비는 "그린이나 페어웨이가 카펫처럼 관리가 잘 돼 있다"며 "반면 러프가 좀 길기 때문에 페어웨이를 지키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6년 리우에 박인비와 함께 출전했으나 메달권에 들지 못했던 김세영은 "지난번 올림픽은 결과는 아쉬웠지만 좋은 경험이 됐다"며 "이번엔 그때의 아쉬움을 떨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고 다짐했다.

박인비는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한국 선수 우승이 예년보다 줄었지만 우리 선수들이 일본 코스에 익숙해 유리한 면이 있다"며 "올림픽은 일반 투어 대회와 달리 '톱 10'이나 상위권 성적보다 1, 2, 3위를 해야 하는 대회인 만큼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온 기량을 다해서 플레이하겠다"고 2연패 의지를 다졌다. 연합뉴스

오지현, 3년 만에 우승 삼다수 마스터스 정상

오지현(25)이 3년 침묵을 깨고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정상에 다시 섰다.

오지현은 1일 제주도 서귀포시 우리들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KLPGA투어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총상금 9억원) 최종 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7언더파 271타로 우승했다.

만 3년에 가까운 1086일 동안 60개 대회를 치르는 동안 겪은 우승 갈증을 씻어낸 오지현은 KLPGA투어 통산 7승 고지에 올랐다.

앞서 오지현의 최근 우승은 2018년 8월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였다.

시즌 개막전부터 5개 대회 연속 컷 탈락이라는 수모도 겪었던 오지현은 이번 우승으로 부활의 날개를 활짝 폈다.

오지현은 "너무 기다리던 우승"이라고 말문을 여는 순간 눈물을 왈칵 쏟아내 그동안 마음고생이 만만치 않았음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제주북초 김동민 국제테니스대회 2관왕

12세부 최정상 단·복식 2관왕

국제테니스대회서 2관왕을 차지한 김동민.

제주북초등학교 김동민(6학년)이 2021 KETF 국제주니어테니스대회(U12)에서 단·복식 2관왕을 차지했다.

제주북초에 따르면 김동민은 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전북 순창군 순창공설운동장 코트에서 열린 이번 대회 마지막날 남자 단식 결승전에서 김원민(안동용상초)을 상대로 역전에 성공하며 12세부 최정상 자리에 올랐다.

복식 경기에서는 결승전 상대 선수였던 김원민과 파트너를 이뤄 우승을 합작, 2관왕의 주인공이 됐다.

김동민은 앞서 순창에서 열린 제56회 전국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도 2관왕을 차지한 바 있다.

한편 남자 새싹부 한지호(제주북초, 2학년)는 이번 대회에서 단식 3위, 복식 1위를 차지했다. 오은지기자

KBS1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간극장
8:25 스포츠 문제아들(재)
8: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8:45 KBS 뉴스 제주
9:00 2020 도쿄올림픽
핸드볼/비치발리볼
1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2:30 2020 도쿄올림픽
테니스
13:00 2020 도쿄올림픽
배드민턴/다이빙/사이클
16:00 사사건건
1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7:30 탐나는 제주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19:40 우리말 겨루기
20:30 2020 도쿄올림픽
하이라이트
메달 명장면
2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조선팝, 드랍 더 비트
23:00 더 라이브
23: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23:50 2020 도쿄올림픽
하이라이트

KBS2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7:00 올림픽 투데이
8: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8:50 여기는 도쿄
배구/탁구/사격/배드민턴
11:55 여기는 도쿄
배구/탁구/사격/배드민턴
15:00 KBS 뉴스타임
15:10 여기는 도쿄
탁구/체조
18:00 여기는 도쿄
야구
20:20 여기는 도쿄
야구
22:40 개는 훌륭하다

MBC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매거진 해피플러스
8:30 2020 도쿄올림픽
배구 대한민국:세르비아
핸드볼 대한민국:앙골라
10:50 MBC 뉴스
11:00 2020 도쿄올림픽
야구본선/레슬링
15:00 2020 도쿄올림픽
탁구/체조/다이빙/사격
17:20 2020 도쿄올림픽
탁구/체조/다이빙/사격
19:40 MBC 뉴스데스크
20:40 안싸우면 다행이야 스페셜
22:40 나 혼자 산다 스페셜

JIBS/SBS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뉴스
7:35 모닝와이드 3부
8:35 SBS 도쿄올림픽
여자배구/레슬링/
여자핸드볼/탁구
11:00 SBS 도쿄올림픽
야구/탁구/배드민턴
14:00 SBS 도쿄올림픽
야구/탁구/배드민턴
17:30 SBS 도쿄올림픽
체조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생활의 달인
22:00 라켓소년단
23:1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EBS1

7:30 꼬미와 베베
8:00 딩동댕 유치원
9:15 세계의 비밀 수호대 번개맨
9:40 우리집 유치원
12:10 아주 각별한 기행
14:10 EBS 다큐프라임
15:15 클래스 e
16:30 딩동댕 유치원
17:00 EBS 뉴스
17:20 세미와 매직큐브
19:05 머털도사
19:35 자이언트 펭TV

제주 CBS FM 93.3Mhz 90.9Mhz

7:00 김덕기의 아침뉴스
7:20 김현정의 뉴스쇼
12:00 CBS낮종합뉴스
12:05 찬양이 있는 숲길
13:30 생명의 샘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김종대의 뉴스업
21:35 라디오강단
22:05 백원경의 가스펠 아워

KCTV

7:00 KCTV 뉴스
7:30 배워봅서 관광중국어
8:00 취미로 먹고 산다
9:00 KCTV 뉴스
9:30 KCTV 다큐스페셜
11:30 이슈토크 팡
13:10 KCTV 다큐스페셜
14:00 취미로 먹고 산다
15:20 마음의 고향 시골장터
17:00 KCTV 뉴스
18:00 취미로 먹고 산다
21:00 KCTV 종합뉴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KBS ☎ 064)740-7331 / MBC ☎ 064)740-2432 / JIBS ☎ 064)740-7800 / KCTV ☎ 064)741-7723 / 제주CBS ☎ 064) 748-7400

오늘의 운세 2일

김종상 지단(知旦) 작명역학 원장
경기대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아름다운 추억의 과거를 생각한다. 외롭다. 48년 다혈질 감정을 억제하고 아랫사람과 대화와 화합에 신경써라. 60년 손재수가 있으니 무리하지 말고 하는 일에 집중하라. 72년 운동이나 음식을 함께 할 동료나 친구가 찾아온다. 84년 직장이나 이성관계에서 선택의 고민을 하게 되며 스트레스를 받는다.

37년 구설이 상대나 나를 통해 이뤄지니 언행 조심할 것. 49년 청탁 또는 뇌물을 받으면 즉시 구설수에 오르거나 신변에 이상이 생긴다. 61년 벌과금 또는 생각지 않은 재물지출이 생기니 운전 시 안전 유의. 73년 몸과 마음이 분주해 갈 데가 많다. 스케줄 관리 철저. 85년 취업이나 시험에 기쁜 소식이 있다.

38년 재물에 이익이 따르나 건강 관리 철저. 50년 자식 문제나 직원의 문제로 부부 간에 언쟁이 생기니 주의. 62년 자녀문제로 기쁜 소식을 접한다. 74년 문서 계약에서는 유리. 투기는 조심해야 하며 도박·경마는 멀리하라. 86년 이성교제가 양쪽에서 올 수 있다. 결단이 필요. 외모가 깔끔한 사람을 먼저 선택.

39년 활동성이 왕성하고 의욕이 강하나 배신수 조심. 51년 감정이 앞서면 낙상할 수 있으니 여유가 필요하고 늦지말 것. 63년 무언가 새롭게 바꿔 보려고 마음이 동요한다. 75년 귀인을 만나는 격으로 길하나, 자만이나 과욕은 후회를 부르게 된다. 87년 상대에게 믿음과 신용을 얻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

40년 하는 일에 성과가 있으며 인정받는다. 52년 강함은 부드러움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배려와 격려가 필요한 때. 64년 차면 넘친다. 욕심이 과하면 화를 면하기 어렵다. 76년 남의 일에 불필요한 호기심이나 참견은 구설로 나를 오히려 실망시키게 된다. 88년 이성교제시 불화가 생기니 언쟁 조심하라.

41년 즐거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필요. 53년 매출 이익이 따르거나 동업, 창업하려 한다. 손으로 하는 업이 유리. 65년 나의 능력이 꼭 필요한 때. 주변의 도움에 적극 임하라. 77년 신규창업이나 할 일이 생기고 업무가 늘어나 즐거우나 결과는 저조. 89년 한번 시작한 일은 마무리를 잘하는 습관이 필요.

42년 소송 또는 문서와 관계된 일은 불리하니 미루거나 합의로 진행함도 좋다. 54년 할 일은 늘어나고 피곤한데 돕는 이가 없어 외롭고 능률은 저하. 66년 능력은 있어도 주변에서 나를 몰라준다. 78년 만남의 기쁨은 잠깐, 커다란 기대는 오히려 실망을 키운다. 90년 재물에 이익이 따르나 건강은 염려된다.

43년 주변 상황을 받아들이는 여유가 생긴다. 상대를 배려하며 경청해줄 것. 55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으니 답답함이 가중된다. 67년 목표를 선정, 실천하면 좋은 결과 온다. 79년 자녀에 대한 경사나 막혔던 일이 해소된다. 91년 친구 또는 동료와의 관계가 좋으나 용돈은 궁하게 된다.

44년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하는 법. 변동은 자제하고 신중해야. 56년 탁월한 언변 친화력으로 인정받는다. 68년 자녀문제나 가족문제로 불화가 생긴다. 80년 어려운 시기를 대비해 저축 또는 미래 설계 필요하다고 느낀다. 92년 친구의 문제나 가정에서 불화가 조성되니 집착하지 말고 마음은 열어라.

45년 경쟁자가 나를 시기하거나 배신하니 주의하라. 57년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일이 있다면 풀려나가니 계획을 잘 세워라. 69년 가정에서보다 외부로 경제적 가치를 찾으려 한다. 81년 시험 자격 준비자에게는 진전이 있고 희망이 보인다. 93년 어려움 가운데 희망이 보인다. 형제일로 고민이 생긴다.

46년 급할수록 돌아가는 마음과 여유가 필요하다. 58년 활동력은 왕성해지나 지나치거나 무리하면 결과는 오히려 작아진다. 70년 상사의 추천·도움이 있거나 사업자는 금전운이 좋아진다. 82년 모임이 있으나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조기 귀가. 94년 의욕이 강하고 갈 곳이 많다. 활동 원만.

47년 손재가 있거나 분실수가 보이니 오래 머물러야 할 경우 중요한 것은 두고 외출. 59년 하는 업무에 하자가 발생하니 중요 계약은 다음으로 연기. 71년 자식관련 문제로 바쁘고 고민을 하게 된다. 83년 취업이나 직장문제가 지연되고, 하는 일에 하자가 발생하는 격. 95년 언행에 장해가 따르거나 낙상 조심.